黃泌秀의『達道大全』고찰*

A Study of Pil-su Hwang's *Daldodaejeon*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1. 서 언
2. 편찬의 배경 및 출판 과정
3. 체재 및 내용
4. 내용 분석
5. 결 언
<참고문헌>

<초 록>

본고는 조선 후기의 儒醫인 愼村 黃泌秀의 편찬서 중 하나인『達道大全』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찰함으로써 이 책이 갖고 있는 서지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조선 후기 중요한 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達道大全』은 황필수가 처음 편찬한 책으로서 그가 차후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전문 도서편찬자이자 편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황필수는 儒醫라기보다는 유학자이며 26세인 1867년에『達道大全』을 편찬하였고『斥邪說』을 편찬하기도 하여 본격적으로 도서편찬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황필수가『斥邪說』과『達道大全』을 편찬한 목적은『척사설』의 경우는 유학을 옹호하는데 중점이 있었고,『달도대전』은 오륜을 중심으로 유학의 근본적인 교훈을 널리 펼치기 위한 것으로 스승 李勝愚가 정리한『宋書百選』의 영향을 받았다.

『達道大全』은 청나라의 문장가이던 徐郙(1838~1907)가 서문을 썼고 집주는 黃芝洙가 정리했으며 金耆淵이 교정하였고 黃鍾顯은 간행비를 부담하여 1873년 美陽書林에서 목판으로 판각・간행하였다.

『達道大全』의 체재를 살펴보면 황필수가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오륜의 순서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편차를 정리하였다. 부록인「我我說」은 황필수가 편찬한『斥邪說』에 견줄 만한 단독 편찬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要語: 황필수, 달도대전, 도서편찬자, 송서백선, 이승우, 척사설, 조선후기

---

* 2015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6년 12월 3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6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www.kci.go.kr

<ABSTRACT>

This study chose *Daldodaejeon* (達道大全) by Sinchon Pil-su Hwang (愼村 黃泌秀), who was one of the book editor during late Josun, as a research target and understand bibliographic feature of *Daldodaejeon* and assured his stature. Fist book Pil-su Hwang compiled, *Daldodaejeon*, shows aspect of his ability and a representative statue as a professional book editor and writer in late Josun. Pil-su Hwang was considered just as a Confucian scholar rather than You-u (儒醫), a Confucian scholar and a doctor. Pil-su Hwang compiled *Daldodaejeon* in 1867 at age of 26, and wrote *Chucksasull* (斥邪說) to begin in earnest as a book compiler. Main purpose Pil-su Hwang wrote and compiled *Chucksasull* and *Daldodaejeon* was to advocate Confucianism. *Daldodaejeon* was influenced by his teacher Seung-woo Lee (李勝愚)'s book *Songseobeacksun* (宋書百選) which was to spread out Confucianism's core lesson, Oryun (五倫). *Daldodaejeon* was published at 1873 by engraving on the wood block. Introduction of *Daldodaejeon* was written by Boo Seo (徐鄙) (1838~1907), variorum was organized by Jisoo Hwang (黃芝洙), proofread by Ki-yeon Kim (金耆淵) and Jonghyun Hwang (黃鍾顯) payed Miyangseorim (美陽書林) for the publication. Looking in to the format of *Daldodaejeon*, it was formatted with Pil-su Hwang's own judgement instead of traditional way of Oryun's naming and order. A supplement, 'Aasull' (我我說) is considered as a comparable written work to the *Chucksasull* by Pil-su Hwang.

Key words: Pil-su Hwang, *Daldodaejeon*, book editor, late Josun, Seung-woo Lee, Sung-woo Lee, *Songseobeacksun*

www.kci.go.kr

1. 서 언

愼村 黃泌秀(1842~1914)는 조선 후기에 활동한 도서편찬자이다. 지금까지 황필수는 그의 부친이자 저명한 의학자였던 黃度淵(1808~1884)과의 관계로 인해 儒醫로 알려져 왔으나 의학 분야에 종사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유학을 옹호하고 진작시키려고 노력했던 유학자이며 많은 서적을 편찬한 도서편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황필수가 활동하던 시대는 전통시대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던 유학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젊은 유학자였던 황필수는 최선을 다해 유학의 교훈을 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의 결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達道大全』가 편찬된 것이 이다.

황필수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도서편찬자로서 직접 편찬한 도서가 10여종이며 기타 간행에 관계한 도서가 다수 있다. 본고는 그가 편찬한 도서 중『達道大全』을 고찰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해내고, 한편으로는 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규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황필수에 대한 연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도서 출판의 관점에서, 그가 한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시대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때였으므로 도서출판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황필수의 경우, 전형적인 유학자의 입장에서 저서를 편찬·출간하기도 했고, 기존의 서적을 增補하여 재간행하기도 했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찬서를 간행하기도 한 다양성을 보인다.

황필수와 그의 편찬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金鍾天이 황필수가 편찬한 11종의 도서를 언급하면서 19세기 후반의 중요한 도서편찬자로 소개한 것이 황필수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다.[1] 이 논문은 황필수를 본격적으로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전문 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를 소개했다. 다만 연구의 결과가 해제 수준에 그치고 말아 본격적인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연구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노대환은 황필수의 사상적 행보

1) 김종천,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서지학연구』제10집(1994. 6), 275-288.

www.kci.go.kr

에 주목하여 그가 新舊學折衷을 주장하였음을 밝혔는데, 이는 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2] 김순희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던 황필수가 새로운 문서 형태의 정립을 위해 출간한 『新式儒胥必知』에 대해 고찰하였다.[3] 이밖에 한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4]

『達道大全』은 『達道』, 『達道大全』, 『達道大全綱領』, 『達道集註大全』, 『達道大全十二則』, 『五倫提綱』 등의 표제명을 가진 것들이 있다. 그러나 권수제는 모두 '達道大全十二則'으로 동일하다. 편철 형태는 天・地・人 3책 또는 上・下 2책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표제명, 권수, 권말 수록분에 따라 편철은 차이가 있으나 본문은 동일한 목판본이다. 수록분에 따라 편철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서책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거나 추가하여 제책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로 보인다.

2. 편찬의 배경 및 출판 과정

2.1 황필수와 『宋書百選』

『달도대전』의 편찬 배경과 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관련이 되는 자료가 『宋書百選』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石耘 李勝愚(?~1875)[5]가 『朱書百選』의 체재를 본받아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서간문 중에서 100편을 선정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1876년(丙子)에 간행되었는데 황필수와 관련하여 이 책이 주목되는 이유는 황필수가 간행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원래 이승우에 의해 편집이 마무리된 것은 1861년(辛酉)이었으나[6] 간행되지

2) 노대환, "愼村 黃泌秀(1842~1914)의 사상적 행보," 『한국학연구』 제37집(2015. 5), 479-508.
3) 김순희, "『新式儒胥必知』 고찰," 『서지학연구』 제63집(2015. 9), 177-198.
4) 오병건, 박경남, 맹웅재, "『方藥合編』 中 「活套鍼線」에 관한 板本學的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제20권 제2호(2007. 12), 169-236.
5) 지금까지 이승우의 생몰년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宋書百選』의 後識에 의해 몰년이 1875년임이 확인되었다.

www.kci.go.kr

못한 채 이승우는 1875년 사망하였으며, 그 이듬해 황필수에 의해 간행되었다. 李憙翼의 '宋書百選後識'에 이러한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 우리 아버지께서 이 책을 편집하셨는데 16년 뒤인 병자년(1876) 가을에 황필수 군이 예전의 제자로서 또한 일찍이 '또한 장차 널리 전파할 것이다.'라는 말을 같이 들었으므로 인쇄에 맡겨 아버지가 남긴 뜻을 완성하였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황군은 할 수 있었다. 불초자식 희익은 삼가 기록한다.[7]

이희익은 이승우의 아들이다. 황필수가 아버지인 이승우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므로 오랜 인연이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데, 결국 황필수가『송서백선』의 출간을 책임진 것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황필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다만 원본이 초록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지 상·하 두 편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베껴 쓰다 보니 수정하여 6편으로 나누지 않을 수 없다. 대개 편차가 많아서는 안 되지만 또한 朱書의 편차에 맞는다. 편차가 완성된 후 다시 석운 선생에게 질의하였다. 때는 신유년(1861) 뒤 13년째 되는 해(癸酉, 1873) 2월 초하루이다.[8]

> 계유년(1873)에 편차를 수정한 뒤에 드디어 선생의 허락을 받았다. 물러나 세상에 전할 일을 도모하였으나 머뭇거리다가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2년 뒤에 선생께서 돌아가시자 더욱 남기신 뜻을 완수하지 못할까 두려워 아들인 이희익과 삼년상을 치르기 전에 빨리 인쇄에 맡겼으니 이 일이 어찌 선생을 사모하는 것에 그치겠는가. 병자년 초가을 황필수는 삼가 절하며 다시 기록한다.[9]

이로써 황필수가 이승우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6)『宋書百選』跋.
"崇禎紀元後二百三十四年 辛酉仲秋 後學延城李勝愚謹書."

7)『宋書百選』後識.
"我先君子 編輯是書 後十六年丙子秋 黃君泌秀 以舊日門生 亦嘗與聞 爲將布播 而付諸剞劂 以成遺志 不肖之所未能 而黃君能焉 不肖孤憙翼謹識."

8)『宋書百選』後序.
"第其原本 出於抄錄 只分上下兩編 而今之傳寫也 不得不釐而六之 蓋其編簡不可以多 亦合乎朱書之編次也 編旣成 復質于石耘先生 時辛酉後十有三年 仲春之吉也."

9)『宋書百選』再識.
"癸酉釐編之後 遂蒙先生印可 退謀壽世 而因循未果 再明年先生沒 益懼遺志之未就 與其胤憙翼 亟鋟于三喪之前 是役也 豈徒寓景慕而止也 丙子孟秋 泌秀謹拜手再識."

www.kci.go.kr

이승우는『宋書百選』을 편집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시열의 학맥을 잇는 정통 유학자였다. 따라서 황필수도 노론계의 유학자라는 학자적 위상이 정립된다고 할 수 있다. 황필수의 선조 중에서 송시열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10]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송서백선』의 편집을 마친 해에 황필수는 20세였다. 제자였던 황필수가 스승이『송서백선』을 편찬하기 위하여 대상 서간문을 선정하는 작업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이『달도대전』의 편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황필수가『송서백선』의 편차 정리와 간행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 책은 처음에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추측컨대 이승우가 송시열의 서간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0편을 초록했을 때, 일정한 주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황필수가 현재 전하는 대로 3책 6권의 편차로 재정리하였다. 황필수도 밝혔듯이 이것은『朱書百選』의 체재를 따른 것이다. 초록이 완성된 뒤 13년 만에 편차를 정리하고 스승에게 허락을 받았으며, 간행까지 담당했으니『송서백선』을 기획하고 내용을 선별한 자는 이승우이지만, 편집을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간행을 맡은 주체는 황필수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의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2.2 편찬 목적

황필수가『達道大全』의 편찬을 완성한 것은 그의 나이 26세인 1867년(丁卯)이었다. 이 해에 그는 대표적인 저서인『斥邪說』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이는 19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척사서의 하나이다.[11] 황필수가 20대 중반에 이 두 종류의 서책을 편찬・편찬한 의도는『척사설』의 경우는 서구 문물의 유입을 배척함으로써 유학을 옹호하는데 중점이 있었고,『달도대전』은 유학의 근본적인 교훈을 널리 펼치기 위함에 있었다. 이러한 황필수의 출판 의도와 편찬 과정의 노력은 일부의

10) 노대환(2015), 482.
11) 노대환(2015), 480.

www.kci.go.kr

공감을 얻었다.[12] 황필수는『달도대전』의 서문에서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

> 達이라는 것은 善에 머무름을 말하니 천하와 고금에 함께 하는 것이고, 道라는 것은 본성을 거느림을 말한다. 인륜이 중요하므로『中庸』에서 父子・君臣・夫婦・昆弟・朋友의 다섯 가지를 천하의 達道로 삼았다. 이것을 잘 서술하고 계승한 것은 周公의 통달함이요, 자애로움과 효도에 머문 자는 文王의 道이다. 어찌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서 천하의 달도를 다할 수 있겠는가. …(중략)… 내가 이에 감히 성인의 경전을 살피고 현인의 해설을 증거로 삼아 父道・子道・兄道・弟道・夫道・婦道 등 여섯 가지를 內編으로 하고, 君道・臣道・友道・御下・事上・修身 등 여섯 가지를 外編으로 하여 모두 12則이 되었다. 五倫은 둘로 나누면 上下일 뿐이고 합하여 말하면 수신 한 가지에 오륜이 갖추어져 있다. 御下와 事上과 修身, 이 세 가지는『중용』에서 말한 오륜의 조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이유로서 이 세 가지의 조목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것 때문에 합하여 編을 만들었으나 나 혼자 이 편을 즐기려고 한 것이다. 抑陰扶陽의 도리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만, 어느 한 곳에 치우쳤다는 근심은 없을 것이니 아마도 달도의 근본에 가까울 것이며 아랫사람의 직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達道'라고 편의 이름을 지었다.
>
> 금상 4년(1867, 고종 4) 정묘4월 초순 회산 황필수가 쓴다.[13]

황필수는 직접적으로 유학의 쇠퇴에 대한 우려나 시대의 풍조에 대한 불만 등을 지적하여 말하지는 않았으나 유학의 도리를 밝히고자 한 의도는 분명히 언급했다. 황필수가 밝히고자 한 유학의 내용은 '五倫'이었다. 황필수는 오륜의 교훈을 되살려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황필수가 논리의 근거로 삼은 경전은『중용』이다.『중용』에 '君臣, 父子, 夫婦, 昆弟, 朋友之交 다섯

12) 金耆淵,『斥邪說』序. "愼村子姓黃氏名泌秀 與余有世好 又有功於斯門 余亦不能無言於是編." 宋伯玉,『評批斥邪說』序. "友人愼村黃氏 博於文而志于古者也 今其斥邪之說 義正辭嚴."

13) 黃泌秀,『達道大全』原敍.
"達者止善之謂也 天下古今之所同也 道者率性之謂也 人倫爲大 故中庸以父子君臣夫婦昆弟朋友五者 爲天下之達道 善述善繼 周公之達也 止慈止孝 文王之道也 豈有父不父子不子君不君臣不臣 而能盡天下之達道者乎…(中略)…余乃敢稽聖經證賢傳 以父道子道兄道弟道夫道夫道 六者爲內編 以君道臣道友道御下事上修身 六者爲外編 總十二則 五倫分而爲二 則上下而已 合而言之 一修身而五者備矣 上也下也修身也 三者雖不與乎中庸所謂五者之目 而所以行之者 亦莫善於三者之目 是庸合而爲編 要欲自娛是編也 其於陰陽似無扶抑 而實無偏勝之患 庶近於達道之本然 而可以盡在下之職矣 因以達道名編 上之四年 丁卯四月上澣 檜山黃泌秀書."

www.kci.go.kr

가지는 천하의 達道이다.'[14]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達道'를 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했다.

젊은 나이의 황필수가 본격적으로 편찬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편찬한 책의 주제가 오륜의 도를 강조한 것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는 유학자로서 당시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유학의 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황필수는 인륜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오륜이 바로 천하의 모든 인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확립되면 다른 유학의 교훈도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풍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다. 『달도대전』의 편찬에 있어서 황필수의 궁극적인 의도가 유학의 도를 통해 민중의 교화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황필수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고자 『新式儒胥必知』를 편찬한 사실도 계몽의식의 발로[15]였다는 점과 서로 관계가 있다.

황필수는 이전의 서책 중에서 오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편집을 완성하였다. 주로 유가의 경전이 대상이었고, 다른 서적도 참고했다. 다음은 『달도대전』에서 인용한 도서 목록이다.

- 經典類: 『易經』, 『詩經』, 『書經』, 『禮記』,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小學』
- 史書類: 『漢書』
- 其　他: 『顔氏家訓』, 『呂氏童蒙訓』, 『管子』

이 중에서 경전의 교훈은 『예기』를 많이 인용했고, 보다 쉬운 고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小學』을 많이 인용했다. 황필수는 겸손한 표현으로 자신이 혼자 즐기기 위해 이 책을 편찬하였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책의 내용이 유교의 교훈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

14) 『中庸』 제20장.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
15) 김순희(2015), 197.

www.kci.go.kr

2.3 출판 과정

『달도대전』의 겉표지는『達道』,『達道大全』,『達道大全綱領』,『達道集註大全』,『達道大全十二則』,『五倫提綱』 등의 표제명을 제첨하거나 직접 묵서한 것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속표제지는 속표제지에 '達道大全'이라는 서명만 쓴 것과, 제목의 우측 위쪽에 '黃愼村先生家塾原本' 쓰고 좌측 아래쪽에 '贊化堂藏板(贊化堂本)' 쓴 것, 또는 '美陽書林梓行(美陽書林本)'이라고 쓰여진 3종의 속표제지가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사실상 겉표지나 속표제지가 다르더라도 본문은 동일한 목판본으로 인쇄한 것으로 체재나 본문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3책으로 제책된 것으로는 초간본으로 보이는 1873년 간행한 미양서림본과 간행처를 알 수 없는 몇 종, 그리고 찬화당본이 있고, 2책으로 제책된 것은 찬화당본이다. 찬화당 2책본에는 서문과 발문 '아아설' 등 부록을 빼고 목차와 강령, 내·외편만을 인쇄 수록하여 분량이 줄어 2책으로 제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달도대전 속표제지

간행사정은 미양서림본 등에 첨부되어 있는 서문과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황필수가『달도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한 것은 1867년(丁卯) 4월이었고, 6년 뒤인 1873년(癸酉) 9월에서부터 간행을 준비하였다. 미양서림본의 속표제지의

www.kci.go.kr

상란에는 '同治癸酉新鐫'이라고 쓰여 있으며, 제목의 오른쪽에 '黃愼村先生家塾原本'이라고 되어 있으며 왼쪽에는 '美陽書林梓行'이라고 되어 있다. 이로 보아 1873년에 황필수의 집안에서 보관하던 필사 원본을 미양서림에서 목판으로 판각・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필수가 편찬을 마치고 난 뒤에 그의 族弟인 黃芝洙가 集註하였고, 金耆淵이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황지수의 자는 景燁, 호는 石樵이고 황필수의 『척사설』에도 註를 보충할 정도로 황필수의 편찬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었다. 김기연의 본관은 延安이며 자는 景年, 호는 艮窩이다. 그는 『척사설』의 서문을 써 주면서 황필수와의 대를 이은 우의를 언급했다. 여기에 문중의 어른이었던 黃鍾顯의 도움이 있었다. 황종현은 1874년 당시 義州 府尹이었는데 이 책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인쇄비를 부담했다.[16] 황종현이 인쇄비를 출연한 것은 1874년 1월이었으므로 이 책은 1873년 9월에서부터 준비하여 다음 해인 1874년에 출간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17]

원본을 완성하고 나서 6년 뒤에야 출간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나 간행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이 가능하다. 황필수의 『달도대전』은 주위의 선비들에게 가치를 인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필사본이 세상에 유행하기도 했다. 이 필사본의 하나를 怡庭 趙宇熙가 중국에 소개한 일이 있다. 조우희는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으로[18] 1873년에 進賀兼謝恩正使인 李根弼을 수행하여 書狀官으로서 청나라를 다녀왔는데 사행의 임무를 마치고 『달도대전』의 필사본을 徐郙(1838~1907)에게 보여주고 서문을 받아 왔다. 서부의 자는 壽蘅, 호는 頌閣으로 한림원 수찬에서 시작하여

16) 黃鍾顯, 『達道大全』 跋.
"余方駐節灣府 出銀若干 以助剞劂費 蓋天下所共得之理 當與天下共之也 甲戌元月旣望 餉使始觀翁書."

17) 황필수, 황지수, 황종현의 관계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소장 『達道大全十二則』 (古 181.256-H991d-v.1-3) '신촌선생세계도'를 통해 알 수 있다.

18) 『林下筆記』 제26권, 趙門福力條.
"養亭趙公得林 與其季弟秋潭徽林 俱秩崇品 而官吏判弘提 養亭之子 憲燮寅熙宇熙 秋潭之子定熙皆次第登科 憲燮宇熙玉署 寅熙定熙翰林."

www.kci.go.kr

예부상서에 오르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당시 청나라를 대표하는 문장가였다.

> 조선의 조이정 군이 충하사로 연경에 왔다가 사신의 일을 마치고 연경에 있는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중략)… 책 한 권을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의 황신촌 군이 지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책을 읽어보니 진실하게 이치를 설명하고 근거를 인용한 것이 흡족하게 갖추어져 떳떳한 윤리의 도에 깊이 마음을 썼음을 알았다. …(중략)… 황군은 홀로 깊은 이치를 드러내고 實事求是하였으니 세속에 흐르지 않고 名敎에 공이 크다. …(중략)… 지금 이정으로 인하여 이 책을 읽어보니 더욱 황군의 자품과 학문이 순수하다는 것을 알겠다.[19]

서부는 위의 서문에서 황필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 이유로 실사구시의 자세로 유학을 드높이고, 전거의 인용이 광범위하고 정확하며, 변해가는 시속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편찬에 서문을 써주는 경우에는 미사여구로 과장하는 일이 없지 않으나, 서부는 서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필수는 서부의 서문 아래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識를 첨부하였다.

> 내가 이 책을 편집한 것은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선비 친구들 중에 옛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장려하는 자들이 가끔 베껴갔으므로 이로부터 세상에 몇 권이 뿌려졌다. 금년 봄에 한 권이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흘러 전하였는데 사신이 비루하다고 여기지 않고 중국의 한림학사에게 질의하여 마침내 지나친 칭찬을 받았다. 아아 이 책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친구인 이정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頌閣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면서 이 책을 마치 친구처럼 주었으니 이 두 가지는 진실로 분에 넘치는 일이어서 내가 더욱 부끄럽다. 이 때문에 쓴다.[20]
>
> 계유년(1873) 9월 초하루 필수는 기록한다.

---

19) 徐郙, 『達道大全』 序.
"朝鮮趙君怡庭 充賀使來都 使事畢 訪余於京寓 …(中略)… 出一編示余曰 此吾邦黃君愼村之所著也 讀其書 樸實說理 引據賅洽 於彝倫之道 三致意焉…(中略)…黃君乃獨抉其奧 實事求是 其不爲流俗所囿 而有功名敎也 大矣 …(中略)… 今因怡庭而獨是書 益想見黃君品學之粹."

20) 『達道大全』 識.
"余之輯此 非曰有得 蓋將自治 而士友之好古 獎人之善者 往往傳寫 於是世播數本 今年春一本流傳賀使 賀使不以爲鄙 質諸中朝翰士 遂蒙過許 噫 此書本不求知 而交怡庭於不面識 頌閣於論心 書以相贈如親舊 兩誠過望也 滋余愧矣 是爲之書 癸酉菊月初吉 泌秀識."

www.kci.go.kr

조우희가 중국으로 출발한 것은 1873년 3월이었고, 귀국보고를 한 것은 8월 13일이었다.[21] 그리고 황필수가 서문을 보충하여 쓴 것은 9월 1일이니 그 사이에 서부의 서문을 보았을 것이다. 황필수는 서문에서 서부에게 칭찬을 받은 감동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자극을 받아 『달도대전』의 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달도대전』의 현전본은 대부분 찬화당본이다. 그러나 개판은 미양서림에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미양서림에서 개판하여 3책본으로 성책되었던 『달도대전』이 찬화당에서 2책본 또는 3책본으로 인쇄 제책된 과정에 대해서는 속표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속표지에 '達道大全'이라는 표제명의 글자체가 다르고, '黃愼村先生家塾原本'이라고 쓴 것도 글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미양서림본은 원문의 글자체와 유사한 인서체인 반면에, 찬화당본의 서명은 예전체이며, 좌우의 간행사항은 행서체이다. 미양서림본의 속표제지에 서명 외에 '同治癸酉新鐫', '黃愼村先生家塾原本', '美陽書林梓行'이라고 되어 있어 1873년에 황필수의 집안에서 보관하던 필사 원본을 미양서림에서 목판으로 판각・간행한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찬화당본에는 속표지만으로는 출간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속표제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겉표지도 미양서림본은 『달도대전』 찬화당본은 『달도』와 확실하게 다르다. 그리고 간행사항이 없이 속표제지에 예전체로 『달도대전』으로 쓰여져 있는 간본을 살펴보면 내용은 표제지 중앙의 서명의 서체는 찬화당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미양서림에서 판각한 책판 중 속표제지를 간행사항을 쓰지 않고 서명만 쓴 채 다시 판각하여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찬화당으로 목판이 이전되어 이 표제지를 토대로 '黃愼村先生家塾原本'과 '贊化堂藏板'을 보사하여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찬화당본의 경우, 계속적으로 증보판을 출간했다는 것이다. 특히 1900년(庚子)에 간행된 것을 보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世系圖」

21) 『承政院日記』 고종10, 3월 11일 조. '정사 이근필(李根弼), 부사 한경원(韓敬源), 서장관 조우희(趙宇熙)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承政院日記』 고종10, 8월 13일 조. '돌아온 세 사신이 입시하였다.'

www.kci.go.kr

와 부록인「示學者占龍得三十六宮都是春」과 문인 安性浩가 작성한「備考」와「達道大全後語」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찬화당본『達道大全』이 출간된 뒤에 대중의 호응을 얻어 重刊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충하여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 세계도는 처음으로 수록된 것으로 황필수의 가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황필수의 문인인 안성호라는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어, 당시에 황필수에게 여러 제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그가 일가를 이룬 학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찬화당장판'이라는 소장처를 명기하여 간행한 이유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황필수의 가문과 찬화당의 관계를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황필수의 부친인 黃度淵(1807~1884)은 철종 이래로 무교동에서 '贊化堂'이라는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달도대전』표제지에 쓰여져 있는 찬화당을 한의원인 찬화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달도대전』장판처인 '찬화당'은 한의원인 찬화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 후기에 방각본을 찍어내던 인쇄소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황필수가 1900년에 간행한『增補四禮便覽』에는 '書業堂藏板'이라고 되어 있고, 1868년『醫宗損益』[22]은 '武橋贊化堂藏板'이라 되어 있으니 의업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조선시대 京板의 간행처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특히 황도연은 개인 서재로 '游藝室'을, 황필수는 '好古書室'을 갖고 있었다.[23] 여기에 황도연과 찬화당의 관계를 보여주는『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속제표지에는『醫方活套』라는 제목이 있고, 상란에 '己巳孟秋'라고 적혀 있으며, 제목의 오른쪽에는 '惠菴先生原本 內附鍼線'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제목의 왼쪽에 贊化堂 주인이 쓴 識가 小字로 인쇄되어 있다.[24] 이로 보아 황도연과 찬화당 주인은 동일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미양서림에서『달도대전』을 판각하여 간행하였다가 그 책판이 찬화당으로 이전되어 속제표지를

22) 黃度淵,『醫宗損益』序.
"聖上丁卯(1867, 고종 4)成醫宗損益六卷 …(中略)… 歲戊辰(1868, 고종 5)暮春下澣惠菴題."
23) <blog.daum.net/12409/14997430>
24) 黃度淵,『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68-20, 충남대소장본 고서모운 2237).

www.kci.go.kr

바꾸어 찬화당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권수와 권말의 수록을 달리하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편저자인 황도연, 황필수 부자와 간행처인 찬화당의 깊은 관계로 인해 생긴 결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체재 및 내용

3.1 체재 및 구성상의 특징

『달도대전』은 39條의 綱領과 6則으로 구성된 內編 1권과, 3則씩 구성된 外編 2권 등 3권 체재로 되어 있다.

권1 綱領 39條
　內編: 父道1・子道2・兄道3・弟道4・夫道5・婦道6

권2 外編: 君道7・臣道8・友道9

권3 外編: 御下10・事上11・修身12

附錄: 我我說
　　示學者占龍得三十六宮都是春
　　備考(愼村先生行蹟)
　　達道大全後語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유가 경전 중에서 오륜에 관련 있는 부분을 선정하여 오륜의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다. 황필수는 내편과 외편을 구분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었다. 오륜 중에 가정윤리인 父子, 兄弟, 夫婦와 관계있는 내용은 내편에 포함하고, 사회윤리인 君臣, 朋友는 외편에 배열하였다. 외편을 2권으로 나눈 이유는 御下・事上・修身 등은 오륜의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오륜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의 체재에서 특이한 점은 오륜의 전형적인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父子有親 다음에는 君臣有

www.kci.go.kr

義이고, 夫婦有別 다음이 長幼有序인데, 황필수는 이러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체재를 정하였다. 이것은 황필수가 이 책의 편찬에 있어서 오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독자적인 편찬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황지수는 頭註에서 이러한 편찬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 『書經』虞書에서 五敎라고 하고 五典이라고 했으나 그 조목은 말하지 않았고, 『중용』에서 달도라고 하면서 처음 조목을 나누었고, 이 책에서 12則이라고 한 것은 그 도리를 조목으로 나눈 것이다.[25]

> 『맹자』는 가르침에서 시작하여 말했기 때문에 부자의 관계를 앞세웠고, 『중용』은 정치에서 시작하여 말했기 때문에 군신의 관계를 앞세웠으나 이 편은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여 말했으므로 부자의 관계를 먼저 말했고, 다음에 형제의 관계를 말했다.[26]

『서경』에서 처음으로 五敎와 五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27] 자세한 조목은 말하지 않고 다만 주에 오륜으로 설명했을 뿐이고 『중용』에서는 오륜을 거론하면서 君臣을 맨 먼저 말했다.[28] 지금 알고 있는 오륜의 순서와 조목은 『孟子』에 의한 것이다.[29] 그런데 황필수는 이 책을 편찬하면서 맹자가 제시한 오륜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맹자는 長幼有序를 말했으나 황필수는 형제의 도리만을 말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장유유서의 인륜 안에 형제의 관계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형제의 관계로 국한시킴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황필수는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親親)'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 형제, 부부, 군신, 붕우의 순으로 체재를 잡은

---

25) 黃泌秀, 『達道大全』 권1, 內編.
"虞書曰五敎 曰五典 而未嘗言其目 中庸曰達道 而始列其目 此編曰十二則 而條分其路."
26) 黃泌秀, 『達道大全』 권1, 內編.
"孟子自敎而言 故先父子 中庸自政而言 故先君臣 此編自親親而言 故先父子次兄弟."
27) 『書經』 虞書, 舜典.
"愼徽五典 五典克從 …(中略)… 汝作司徒 敬敷五敎 在寬."
28) 『中庸』 20章.
"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29) 『孟子』 滕文公上.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www.kci.go.kr

것이다. 이것은 황필수가 오륜 및 유교의 원리에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한편으로 이 책의 특징과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필수는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 내편과 외편으로 나눈 것은 음양을 본받은 것이고, 3권으로 나눈 것은 三才를 본받은 것이고, 12則으로 나눈 것은 12달을 본받은 것이니, 『달도대전』 한 책에 하늘과 땅의 도가 갖추어져 있다.[30]

그는 『달도대전』의 편찬에 天地之道가 갖추어져 있다고 단언했다. 陰陽과 三才, 12月의 이치를 본받아 이 책을 편찬했으니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책 안에 갖추어져 있다고 자부한 것이다. 황필수는 親親之道를 중심으로 오륜의 순서를 재정립하였으니 이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달도대전』은 몇 종의 3권3책본과 3권2책본이 전하는데, 각 본의 구성에 <표 1>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1> 달도대전 비교

간행처	美陽書林	미상	미상	贊化堂	贊化堂	贊化堂	贊化堂
소장처	장서각 K3-20	국중 古1230-9	규 古1149-8	국중00-7	규 6587	서울대 심악181.25	규6568
간행시기	1873(癸酉)	미상	미상	1874(甲戌)		1900(庚子)	미상
편철	3권 3책	3권 3책	3권 3책	3권 3책	3권 3책	3권 3책	3권 2책
겉표지 서명	達道 (제첨)	達道 (제첨)	五倫提綱 (묵서)	達道大全 (묵서)	達道 (제첨)	達道 (제첨)	達道 (제첨)
책차표시	天・地・人	天・地・人	內篇, 外篇上, 外篇下	天・地・人	天・地・人	天・地・人	上・下
형태사항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0.0×13.8㎝, 6行20字, 上黑魚尾- 23.7×16.7㎝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0.0×13.8㎝, 6行20字, 上黑魚尾- 31.0×19.3㎝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9.7×13.9㎝, 6行 20字 上黑魚尾- 25.0×17.5㎝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0.0×14.0㎝, 6行20字, 上黑魚尾- 27.5×17.8㎝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0.0×13.6㎝, 6行 20字, 上黑魚尾- 28.6×18.8㎝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9.8×13.5㎝, 6行20字, 上黑魚尾- 29×18.5㎝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0.0×14.0㎝, 6行20字, 上黑魚尾- 28×18.8㎝

30) 黃泌秀, 『達道大全』 권1, 內編.
"內外編象兩儀 三卷象三才 十二則象十二月 達道一書 天地之道備矣."

www.kci.go.kr

간행처		美陽書林	미상	미상	贊化堂	贊化堂	贊化堂	贊化堂
속표제지 기입사항		達道大全 同治癸酉新鐫 黃愼村先生 家塾原本 美陽書林梓行	達道大全	X	達道大全 黃愼村先生 家塾原本 贊化堂藏板	達道大全 黃愼村先生 家塾原本 贊化堂藏板	達道大全 黃愼村先生 家塾原本 贊化堂藏板	達道大全 黃愼村先生 家塾原本 贊化堂藏板
권수제		達道大全 十二則	達道大全 十二則	達道大全 十二則	達道大全 十二則	達道大全 十二則	達道大全 十二則	達道大全 十二則
序文	판심제							
	徐序	徐郙, 「序」(1873) 黃泌秀, 「識」(1873)	徐郙, 「序」(1873) 黃泌秀, 「識」(1873)	徐郙, 「序」(1873) 黃泌秀, 「識」(1873)	徐郙, 「序」(1873) 黃泌秀, 「識」(1873)	徐郙, 「序」(1873) 黃泌秀, 「識」(1873)	X	X
	原叙 (黃泌秀)	黃泌秀, 「原敍」 (1967)	黃芝洙, 「達道集註 大全序」 (1868)	黃芝洙, 「達道集註 大全序」 (1868)	黃芝洙, 「達道集註 大全序」 (1868)	黃泌秀, 「原敍」 (1867)	黃泌秀, 「原敍」 (1867)	X
	黃序 (黃芝洙)		黃泌秀, 「原敍」 (1867)	黃泌秀, 「原敍」 (1867)	黃泌秀, 「原敍」 (1867)	黃芝洙, 「達道集註 大全序」 (1868)	黃芝洙, 「達道集註 大全序」 (1868)	X
世系圖	愼村先生 世系圖	X	X	X	X	X	愼村先生 世系圖	X
目錄	目錄	X	○	X	○	○	○	○
綱領	綱領	○	○	○	○	○	○	○
內編	편명	○	○	○	○	○	○	○
外編	편명	○	○	○	○	○	○	○
附錄	我我說	X	X	X	X	附錄: 我我說 (8張) 제 7-8張에 '貼身來'가 추가되어 있음	附錄: 我我說 (6張)	X
	示學者 三十六 韻						附:示學者 占韻得三十 六宮都是春	
	愼村先 生行蹟						備考: 愼村先生行蹟 (安性浩校閱)	
跋文	跋	X	金耆淵, 「達道跋」 (1868) 黃鍾顯, 「跋」(1874)	金耆淵, 「達道跋」 (1868) 黃鍾顯, 「跋」(1874)	金耆淵, 「達道跋」 (1868) 黃鍾顯, 「跋」(1874)	金耆淵, 「達道跋」 (1868) 黃鍾顯, 「跋」(1874)	金耆淵, 「達道跋」 (1868) 黃鍾顯, 「跋」(1874)	X
後語	達道大全 後語						達道大全後 語(安性浩, 1900)	

www.kci.go.kr

3.2 기술 방식

각 권의 첫 행에 '達道大全十二則卷之一' 등의 제목은 2행을 합해 놓은 크기 행간의 상란에 붙여 大字로 썼다. 그리고 본문과 같이 상란에 붙여 대자로 썼다. 본문은 圈點으로 표시하였다. 내편과 외편 등의 편명은 상란에서 한 글자 내려 대자로 쓰고 12則의 소제목은 상란에서 두 글자 내려 썼다. 註는 상란에서 한 글자 띄워 小字로 쓰고, 주의 내용 중에 설명할 것이 있으면 그 아래 小字雙行으로 기술하였으며 圈下註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綱領에서는 제목은 대자로 썼으나 내용과 주는 소자로 썼다. 이 부분에서만 특히 처음에 〔 〕 모양의 괄호 안에 인용하는 원전을 밝혔다. 강령은 총 39조로 되어 있는데 조목을 표시하는 다른 부호나 소제목은 없고, 단지 본문은 상란에 붙여 쓰고, 집주는 상란에서 한 글자 내려 썼다.

인용의 내용에 나오는 인물의 경우 이름을 밝힐 때 대부분 소자쌍행으로 썼으나, 맹자의 이름과 曾子의 이름은 〔軻〕, 〔參〕 등처럼 특별히 표시함으로써 존경을 나타냈다. 송대의 유학자인 周敦頤와 程子로 통칭되는 程顥와 程頤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런데 朱子의 이름자에는 괄호가 빠져 있어 의심이 들게 한다. 그리고 본문에 '旦'자가 나오는 예가 있는데, 이때에도 괄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된 이후 이름에 사용한 글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3.3 集註 및 頭註

황지수는 『달도대전』을 註解하면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集註'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집주의 기술 방식은 본문의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단어나 인명, 지명 등을 해설하고, 이어서 관계있는 보충 해설을 첨부하였다. 집주의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고 평이하게 기술하였다. 두주는 상란 위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細字로 썼다. 두주는 집주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두주에서 口訣을 사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www.kci.go.kr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집주의 내용이 자세하고 평이하게 기술한 것과 두주에 구결을 사용한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이것은 계몽의식을 갖고 있던 황필수의 편찬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4. 내용 분석

4.1 동등한 윤리의 강조

목차에 따라 이 책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內編(6則): 父道 - 스스로 정성스러움, 은혜를 위주로 함, 교훈
  子道 - 의지를 기름, 순종함, 간쟁함, 직분을 다함, 공경함, 어버이를 섬김
  兄道 - 화목함
  弟道 - 공경함, 스스로 정성스러움
  夫道 - 아내를 취하는 도리, 가정을 바르게 함, 어른의 도리
  婦道 - 정숙함, 어긋나지 않음, 공경하고 신중함

- 外編(6則): 君道 - 수신과 반성, 현인을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함, 간쟁을 다름, 백성을 사랑함, 임금의 도리
  臣道 - 임금을 섬김, 간쟁함, 충성을 다함, 나아가고 물러나는 도리
  友道 - 벗을 선택함, 인을 도움, 교유의 일
  御下 - 스스로 정성스러움, 가르침을 확립함, 백성을 새롭게 함
  事上 - 스스로 반성함, 스승을 섬김, 귀인과 어른을 섬김
  修身 - 스스로 정성스러움, 위의를 갖춤, 교유함

- 附錄: 我我說

www.kci.go.kr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필수는 어느 한 쪽에게만 노력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동등한 윤리적 각성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父子, 君臣, 夫婦, 兄弟의 인륜을 말할 때 자식에게는 효도를, 신하에게는 충성을, 아내와 아우에게는 복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황필수는 상호간에 노력해야 오륜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은혜로워야 자식이 효도하게 되고, 형이 화목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아우가 공경하게 되며, 남편이 도리를 지켜야 아내가 어긋나지 않고, 군주가 군주다워야 신하가 충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황필수의 생각이 이 책을 편찬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다.

4.2 綱領

강령의 부분에서는 이 책의 주제인 達道에 원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전의 내용을 선별해 놓았으므로 道의 정의와 達의 의미, 오륜에 관한 언급들을 수록했다. 『易經』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유학의 경전을 인용하다가 마지막에서만 程子의 말을 수록하여 달도의 공부를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되는 점을 경계하여 결론으로 삼았다.[31] 이것은 황필수가 이 책을 편찬하기에 충분한 학문적 실력과 도서의 제작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4.3 집주 및 두주

집주의 내용은 주로 朱子를 비롯한 송대의 유학자들의 해설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관련 서적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송대의 李昌齡이 지은 『樂善錄』을 인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황필수의 견해를

31) 黃泌秀, 『達道大全』「達道大全綱領」.
"學者須敬守此心 不可急迫 當栽培深厚 涵泳於其間 然後可以自得 但急迫求之 只是私已 終不足以達道."

www.kci.go.kr

집주에 직접 사용한 예가 있다. 황지수는 황필수와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집주 작업을 하는 동안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완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자가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하면서 아버지를 잃은 맏딸은 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조목의 집주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이 소자쌍행으로 수록되어 있다.

> 황신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럴 것이다. 여자가 현명하다면 어찌 아버지가 없음을 걱정하겠느냐."라고 하였다.[32]

공자의 말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황필수는 공자가 아내로 맞이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조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현명한 여자라면 아버지가 없는 것이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집주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七去之惡에 관련된 항목에서도 황필수의 견해가 집주에 사용되었다. 황필수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칠거지악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禮敎를 숭상하였으며 조선이 시작되면서 인륜이 정립되고 德敎가 온 나라에 가득하여 시골의 아낙네들도 개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변하였다.

편저자의 견해가 집주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런데 이 책은 집주자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편저자와 집주자의 관계가 같은 집안의 사람이었으므로 평소 대화중에 들었던 말도 집주에 사용한 것이다.

두주는 본문과 집주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하나의 서적에서 집주와 두주가 함께 있는 경우는 드문 예로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32) 黃泌秀,『達道大全』권1,「夫道」.
"黃愼村曰 愚謂意其無所聞而然也 婦苟賢何患於無父也."

www.kci.go.kr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4 故事의 사용

『달도대전』은 주제 및 편집의 특성상 유가의 경전에서 관련 문구를 선별하여 내용을 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우면 독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필수는 고사를 많이 인용하여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兄道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고사를 수록하고 있다.

> 隋나라 이부상서 牛弘의 아우 牛弼이 술을 마시고 술주정하기를 좋아하였다. 일찍이 취하여 우홍의 수레를 끄는 소를 활로 쏘아 죽였다. 우홍이 집에 돌아오니 그의 아내가 맞이하며 "시동생이 소를 쏘아 죽였다."라고 하자 우홍이 듣고 괴상하게 여기는 물음도 없이 곧바로 "포를 떠라."라 하고는 바르게 앉았다. 아내가 또 "시동생이 소를 쏘아 죽였으니 매우 이상한 일이다."라 하자 우홍이 "이미 알고 있다."라 하고 안색이 태연했으며 책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33]

이 고사의 원래 출전은『北史』권72 列傳60「牛弘傳」이고,『小學』에도 실려 있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兄道의 조목에서는 '敦睦'의 가르침만을 말했다. 돈목이라는 말을 형이 된 자는 마땅히 정이 두텁고 화목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때 위의 고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황필수는 대중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고사를 다수 사용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다른 편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계몽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

33) 黃泌秀,『達道大全』「兄道」.
"隋吏部尙書牛弘 弟弼好酒而酗 嘗醉射殺弘駕車牛 弘還宅 其妻迎謂曰 叔射殺牛 弘聞無所怪問 直答曰 作脯 坐定 其妻又曰 叔忽射殺牛 大是異事 弘曰 已知 顔色自若 讀書不輟."

www.kci.go.kr

4.5 御下・事上・修身

『중용』에서는 達道와 達德을 말했는데, 달도는 오륜이고 달덕은 智・仁・勇이다. 황필수는 오륜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달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나, 달덕에 대응하는 세 가지의 덕목으로 御下・事上・修身을 제시하였다. 황필수는 이 세 가지가 오륜을 실천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했다.[34]

> 어하와 사상과 수신 이 세 가지는 달도에 있어서 정해진 위치나 명칭은 없지만 그 쓰임은 '忠'이고 '恕'이며 근본은 한결같이 정성스러워 모든 일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의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35]

위의 내용은 집주에 있지만 황필수의 의도와 다를 것이 없다. 황필수는 오륜을 上下의 개념을 중심으로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법인 御下와 윗사람을 대하는 방법인 事上과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주체인 나 자신을 수양하는 修身은 오륜을 실행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륜의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처럼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책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6 附錄

4.6.1 我我說

이 我我說은 미양서림본과 간행처가 없는 책에는 없고 찬화당본에만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부분으로, 내용이나 구성을 살펴보면 하나의 독립적인 편찬으로

34) 黃泌秀,『達道大全』原敍. '三者雖不與乎中庸所謂五者之目 而所以行之者 亦莫善於三者之目 是庸合而爲編'
35) 黃泌秀,『達道大全』外編. '御下也事上也修身也三者 其於達道雖無定位定名 其用則曰忠曰恕 其本則一於誠 而應萬事者也 附之編末不亦宜乎'

www.kci.go.kr

볼 수 있다. 내용이나 구성의 방식이 황필수의 주요 편찬인『斥邪說』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편찬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아아설 5, 6張의 부분 판심 아래에 '好古堂藏板'이라는 장판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황필수의 서재인 好古書室에서 판각해서 보관하던 책판을 찬화당에서 중간하면서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제목을 我我說이라고 한 이유는 '無我'와 '有我'의 개념을 밝혀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을 억제하고 天理를 간직할 수 있게[36] 하기 위한 것이었다. 편찬의 실질적인 의도는 無我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결국에는 인간들의 고착화된 私心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아와 유아의 개념이 철학적이어서 읽는 사람들이 莊子나 佛敎의 허무한 논리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편찬이 전적으로 유학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편찬의 처음에는 序文에 해당하는 글이 있고, 서문에 이어서 상란에서 한 글자 내려써서 서문의 주해에 해당하는 글이 또 있다. 본문은 상란에 붙여 썼으며 하나의 인용이 끝나면 행을 바꾸어 기록했다. 몇 개의 조목을 인용하고는 이에 대한 황필수 자신의 견해를 주해처럼 첨부해 놓았는데 이 경우에도 한 글자 내려 썼다. 마지막에는 跋文에 해당하는 글이 附記되어 있다. 서문과 발문의 글자는 大字이고, 본문과 주해는 小字인데, 行의 크기도 배의 차이가 있다. 대자와 소자를 면밀히 살펴보면『달도대전』의 글자체와 차이가 있다. 이로 추정해 보건대 이 편찬은 독립적으로 목판이 조성되어 보관되다가『달도대전』의 출간에 이르러 말미에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해는 12조이다. 내용은『孟子』나『周易』등 유가의 경전을 인용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송대 성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였다.『近思錄』에서 인용한 것이 있다. 주요 내용은 천지조화의 원리에서부터 理氣의 문제, 음양오행, 修身 등 유학의 정수에 대한 것이다.

황필수는 발문의 말미에서 이 편찬의 내용이 이전의 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더 연구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혔다.[37]

36) 黃泌秀,『達道大全』「我我說」. '我我說者 愼村子所以推原無我有我之說 以著遏欲存理之機也'

37) 黃泌秀,『達道大全』「我我說」. '豈敢曰 前人之所未發哉 蓋亦因其已知者 而益窮之爾'

www.kci.go.kr

이러한 자세는『달도대전』의 간행의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 편찬이 부록으로 첩부되어 함께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책본으로 제책된 찬화당본에서는 아아설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4.6.2 示學者占龍得三十六宮都是春

이것은 韻字를 맞추어 쓴 五言長篇詩로서 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인정하고 유학에 정진하고자 하는 저자의 각오가 잘 나타나 있다. 제목의 '三十六宮都是春'이라는 말은 송대의 신유학자인 朱熹가 지은「六先生畵像贊」중「康節先生畵像贊」에 나오는 말로『周易』'復卦'의 뜻을 인용하여 유학을 통해 이치를 깨달은 邵雍을 찬미하는 내용이다. 황필수는 점을 치다가 이 구절을 얻은 감회를 5言 36韻의 장편으로 표현하여 유학을 옹호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6.3 備考

이 글은 황필수의 제자 안성호가 스승인 황필수의 행적을 정리한 것이다. 판심에 '愼村先生行蹟'이라고 되어 있다. 총 6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대부분 황필수의 행적 중 인간적인 면모와 학업에 전념했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서두에 일본인 片淵琢이 지은『朝鮮人物誌』중에 실려 있는 황필수 관련 기사를 수록한 것임을 밝혔다.[38] 이 글의 말미에 청나라 許寅輝가 지은 황필수의 本傳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미 失傳되었음을 밝히고 있다.[39]

4.6.4 達道大全後語

安性浩는 22세 때부터 황필수에게 수학한 자로 이 글을 살펴보면 황필수의

38)『達道大全』附錄,「備考」.'日本人片淵琢所著朝鮮人物誌中 有載愼村先生行蹟 故今姑採錄以備後考'

39)『達道大全』附錄,「備考」.'又有淸人許寅輝所著本傳 今逸'

www.kci.go.kr

저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으나 『달도대전』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 기록은 없다. 다만 앞서 말한 『宋書百選』을 황필수가 校刊한 사실을 입증한[40] 점이 주목된다.

5. 결 언

본고는 조선 후기의 儒醫인 愼村 黃泌秀의 편찬서 중 하나인 『達道大全』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찰함으로써 이 책이 갖고 있는 서지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조선후기 중요한 도서편찬자로서의 황필수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황필수는 儒醫라기보다는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는 26세인 1867년(丁卯, 고종 4)에 『達道大全』을 편찬하였다. 이 해에 그는 대표적인 저서인 『斥邪說』을 편찬하기도 하여 본격적으로 도서편찬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達道大全』은 편찬을 마치고 6년 뒤인 1873년(癸酉, 고종 10) 9월에서부터 간행을 준비하여 이듬해에 출간하였다. 황필수가 20대 중반에 이 두 종류의 서책을 편찬한 의도는 『척사설』의 경우는 유학을 옹호하는데 중점이 있었고, 『달도대전』은 오륜을 중심으로 유학의 근본적인 교훈을 널리 펼치기 위함에 있었다.

이 책의 편찬에 영향을 준 것은 황필수의 스승 李勝愚가 정리한 『宋書百選』이다. 『宋書百選』은 『朱書百選』의 체재를 그대로 따라 편찬하였는데, 편차를 실질적으로 정리한 것은 황필수였다. 그리고 1873년 가을, 이 두 책은 같은 시기에 간행이 추진되었다.

황필수는 유학자로서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유학의 도를 지키고자 했다. 그는 오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확립되면 다른 유학의 교훈도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풍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것은 『달도대전』의 편찬에 있어서 황필수의 궁극적인 의도가 유학의 도를 통해 민중을 교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의 다른 편찬서에서도

40) 『達道大全』 附錄, 「達道大全後語」. '又有爲先師而校刊宋書百選'

www.kci.go.kr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達道大全』은 1873년에 황필수의 집안에서 보관하던 필사 원본을 美陽書林에서 목판으로 판각・간행하였다. 이 책은 이미 필사본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필사본의 하나를 趙宇熙가 1873년에 書狀官으로서 청나라에 갔을 때 당시 청나라의 문장가이던 徐郙(1838~1907)에게 보여주고 서문을 받아 왔다. 이 일로 인해 황필수가 간행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주는 족제인 黃芝洙가 정리했으며 金耆淵이 교정하였고 黃鍾顯은 간행비를 부담했다.

『達道大全』은 3종류의 속표제지가 있고, 제책 형태도 3권3책과 3권 2책이 있으나 서문과 발문 '아아설' 부록 등 수록 분량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권책수, 겉표지 속표제지가 다르더라도 본문은 동일한 목판본으로 인쇄한 것으로 체재나 본문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達道大全』의 체재를 살펴보면 황필수가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오륜의 순서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편차를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문 도서편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집주를 최대한 평이하게 해설한 것이나 두주에서 구결을 달아 쉽게 읽을 수 있게 한 것은 대중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의 계몽의식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 내용에서 고사를 많이 사용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부록 중의 하나인 「我我說」은 황필수가 편찬한 『斥邪說』에 견줄 만한 단독편찬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편찬 의도나 진행 방식, 내용 등이 『달도대전』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부록으로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체재나 구성, 내용 등으로 보아 단독편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達道大全』은 황필수가 처음 편찬한 책으로서 그가 차후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전문 도서편찬자이자 편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고 그와 관련된 서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됨으로써 황필수의 위상과, 조선 후기의 출판 문화의 실상이 자세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순희. “『新式儒胥必知』 고찰.”『서지학연구』 제63집(2015. 9). 177-198.
김종천.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서지학연구』 제10집(1994. 6). 275-288.
노대환. “愼村 黃泌秀(1842~1914)의 사상적 행보.”『한국학연구』 제37집(2015. 5). 479-508.

『규장각 도서해제』
『書經』
『達道大全』
『孟子』
『承政院日記』
『醫宗損益』
『林下筆記』
『宋書百選』
『中庸』
『惠庵心書古今三統醫方活套』

www.kci.go.kr